

## 고전문학 대중화를 위한 인문서 출간의 한 방법\* \*\*

유광수\*\*\*

### <차례>

1. 서론
2. 인문서의 목적과 방향
  - 1) 출판 과정과 독자 눈높이
  - 2) 핵심 컨셉과 지향
3. 고전문학 대중화 방법
  - 1) '문학'이란 총체성
  - 2) 설명과 풀이를 통한 제시
  - 3) 의미화와 확장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고전문학을 현재에 계승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인문서 출간을 통한 대중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인문서 출간은 일회성 투고와는 달리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이기에 고전문학의 가치와는 별개로 상업적 출판으로서의 제약이 따른다. 그런 제약은 편집에 따른 것에서부터 내용적 구성과 컨셉을 설정하고 서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 인문서 출간은 우리 고전의 가치와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유효한 방식이기에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인문서를 통해 대중화하는 여러 방법들이 모두 그러하겠지만, 특히 인문서를 통한 고전문학 계승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결국 고전문학이 존재하던 모습 그대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4093488).

\*\* 이 논문은 2023년 8월 17일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3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전달하려는 집필자의 의지와 지향성이다. 물론 고전문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개요, 단편적 교훈에 머물게 되거나, 전문적이고 지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 모두 나름의 가치가 있으나, 고전을 고전답게 계승하는 방법으로서 고전이 문학으로서 자리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설명하고 풀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고전이 문학 작품이었다는 총체성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 전체를 보여주려 노력하며, 가치의 강요나 설득이 아닌 설명과 풀이를 통한 제시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고전 계승에 중요한 방법으로, 고전문학이 문학의 본령대로 존재하게 하는 길이다.

고전의 현재적 계승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우리 고전을 현재에 효과적으로 전달·발전시킴으로써 고전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오늘의 삶을 되새기게 하며, 미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고전, 고전의 계승, 대중화, 인문서, 스토리텔링

## 1. 서론

일반인에게 ‘고전’과 ‘고전문학’은 종종 혼용된다. “고전”이란 용어의 내포에 ‘경서’와 ‘문학 작품’이 경우와 상황에 따라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sup>1)</sup>

“고전이 가치 있다”고 할 때, ‘고전’의 내포는 『논어』, 『맹자』 같은 경서일 수는 있지만, 〈춘향전〉, 〈홍길동전〉이기는 쉽지 않다. 물론, 고전문학 작품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논어』, 『맹자』 류의 경서에 ‘고전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 비하면 결코 많다 할 수 없다. 게다가,

1) 본고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통용하듯 ‘고전’, ‘고전문학’, ‘고전 작품’ 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고전작품에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들도 경서와 문학작품 중 더 가치 있는 것을 고르라 하면 대부분 경서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경서는 고전이지만 모든 문학 작품이 고전일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결국 “고전이 가치 있다”고 할 때, 고전 경서는 대부분 포함되지만 고전 작품은 경우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포함된다 해도 작품에 따라 선별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뿐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고전문학 연구자들은 ‘고전문학’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우리들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고전을 현재에 계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또, 일반인들이 “고전은 어렵다”라고 할 때, 경서를 두고 어렵다는 것인지 고전문학을 두고 그러는 것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동양 경전만이 아닌 서양 경전도 그렇듯이, 일반인들에게 경서는 어렵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은 본래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는 경서의 난해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고전문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말일 가능성이 더 높다.<sup>2)</sup> 즉, 불편함과 짜증이 섞인 “고전이 어렵다”는 말은 “고전문학이 어렵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많이 하는 말이 “지루하다”는 언급인 것만 봐도 그러하다. 경서는 지루함보다는 심오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렵고 난해함이 경서의 가치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p>3)</sup>

2) ‘經典’은 해당 저작에 대한 가치 부여가 믿음, 신앙 등과 합해진 일반적 수준 이상의 경우에 사용하고, 그 자장 밖에 벗어난 시선에서 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經書’로 지칭하기에, 본고에서도 이를 혼용한다. 이렇게 경서는 경전의 경우로까지 받아들여지기에, 일반 문학작품과는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의 정도는 경전과 경서에는 심오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문학작품에는 피곤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3) 경서화 과정이나 경서의 해석 등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안재순, 「유가경전해석학과 『논어』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62, 동양철학연구회, 2010, 243~272쪽; 김경천, 「經 개념의 성립과 經書化 과정」, 『중국어문논총』 49, 중국어

반면 고전문학 작품은 어렵기에 지루하고, 지루하기에 흥미가 없어, 다시 더 어렵게만 여겨지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문학 작품이 경서에 비해 그리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고전이 가치 있다”와 “고전이 어렵다”는 언급을 종합해보면, 경서는 가치 있기에 어려워도 필요하고 또 어려움이 담고 있는 심오함에 경탄할 수도 있으나, 고전문학 작품은 가치가 그리 대단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어렵기만 하다는 말로 들린다. 즉, “고전 경서처럼 가치도 없는 것이 쓸데없이 어렵기만 하다”는 뼈아픈 지적이 된다.

본래 경서와 문학 작품의 존재 위치와 소비 방식이 다르기에 “고전”을 둘러싼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게 싫고 어렵고 지루하면 고전문학 작품을 읽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든다. 즉, 고전문학을 두고 ‘어렵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지루하다’는 의견은 선뜻 받아들이기 저어된다. 지루하다면 읽지 않으면 그만이다. 중요하지도 대단치도 않은 것이니 무시하면 된다. 그걸 굳이 짜증 섞인 불평까지 하며 수용하는 것은 억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비록 어렵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결코 ‘지루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서양을 비롯한 외국 고전 작품들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그 작품이 성립한 당대 문화와 시대 상황을 모르면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는 난관이 존재한다. 또, 시대에 따라 서술 방식이나 묘사가 달라 관점에 따라 지루할 수도 있다.<sup>4)</sup> 게다가 외국어로 굳어

문연구회, 2011, 135~152쪽; 김용재,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6)」,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2015, 7~43쪽 참조.

4) 사실주의가 풍미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소설을 비롯한 유럽 소설들은 서사 내용만 두고 볼 때는 충분히 지금도 수용하기 쉬우나, 그 구체적 텍스트를 읽어내기란 생각보다 지루할 수 있다. 찰스 디킨즈의 〈올리버 트위스트〉나 알렉상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등만 해도 그러하다. 그래서 원전 완역보다는 요약 번역이 더

진 용어와 우리와 다른 관습의 차이도 있어, 기실 우리 고전 작품보다 이해가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외국 고전 작품을 지루하다는 말로 평가하지 않는데, 이는 그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주동적 의지가 ‘어려움’과 ‘지루함’을 상쇄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 지점이 우리 고전문학이 놓인 자리이다. 즉, 모든 일반인들이 서양 고전문학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모두가 해당 작품을 읽으려 하지도 않기에 문제가 없다. 서양 고전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읽고 수용하려는 독자들만 존재할 뿐이고, 그렇게 적극적 의지를 지니고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을 피하기에 어려움, 지루함 등이 불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고전문학이 놓인 자리는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 그러하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선택 없이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적 관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고전문학 작품은 읽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거나, 처했던 경험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일정 기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 때문으로, 중등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고전문학의 수용 방법과 현실이 우리 고전문학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에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지만, 어려운 시험 문제로 존재하기에 고전문학을 도외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 점수를 위한 비자발적 학습을 통해 암기·습득되어야 할 그 어떤 불편한 것이 고전문학인 것이고, 그런 반복된 과정이 내재화함에 따라 고전문학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이후 삶에까지 드리워진 것이다.<sup>5)</sup>

일반적인 상황이 되기도 한다. 원전 번역을 한 것은 번역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을 읽어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김희진, 「문학작품의 요약번역에 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6,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65~85쪽; 이인규, 「찰스 디킨즈 소설의 번역 점검」, 『안과밖』 13, 영미문학연구회, 2002, 254~279쪽 참조.

이렇게 부정적으로 굳어진 고전문학에 대한 인상이 고전의 현재적 계승에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전 계승을 어렵게 하는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고전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점검이다. 그런 반성과 검토를 통해 고전이 가치 없거나 고전이 오늘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고전 계승을 위한 노력은 연구자의 유희 혹은 특정 연구자의 강요 정도로 규정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고전문학의 가치는 분명하다.<sup>6)</sup> 고전이 지니고 있는 시대 가치적, 교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대 매체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유희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sup>7)</sup>

- 
- 5) 가장 문제적인 것은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 과목으로 고전문학이 존재한다는 현실이다. 게다가 시험이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객관적이고 명료한 정답 찾기 식의 교육이 중등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이란 본래 창의적이고 소통적이기에 다양한 해석을 용인하는데, 입시를 목적으로 혹은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문학의 본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예전 용어에 옛날 감수성과 에토스를 지닌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음미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이렇게 비자발적 상황을 통과외적으로 겪음으로써 굳어지게 되는 고전문학에 대한 인상과 감정이 좋을 수는 없다. 고전문학의 교육적 측면에 대해서는 장경남, 「고등학교 교과서로 본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와 제언」,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014, 533~559쪽; 서유경, 「고전소설교육 패러다임의 점검과 전망」, 『국어교육연구』 63, 국어교육학회, 2017, 87~112쪽; 최홍원, 「고전문학 제재의 수록 맥락과 교육적 인식의 탐색-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5~46쪽; 손태도, 「고전문학의 향유방식과 교육: 과거, 현재, 미래」, 『고전문학과 교육』 3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5~45쪽; 한길연, 「사범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제언」, 『문학교육학』 6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45~89쪽;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7쪽; 이유미,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소설 수록과 활용방안」, 『돈암어문학』 41, 돈암어문학회, 2022, 287~319쪽 참조.
- 6) 김현정, 「고전시가의 가치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의 고찰」,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467~499쪽; 박연호, 「한국 고전문학 텍스트의 고전적 가치」, 『한국어문교육』 1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2, 25~43쪽 참조.
- 7) 고전은 시대적 변화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변주 계승되어 왔다. 이는 고전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춘향전> 콘텐츠의 지속적 계승 확산만 보아도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김대범, 「영상매체 전환에 따른 <춘향전

고전의 가치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그 가치를 오늘에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고전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관념이 팽배해진 현실적 상황을 감내하며, “고전이 가치 있다”는 내포에 고전문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까지, 고전문학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 고전을 오늘에 발전적으로 계승하도록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노력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필자는 고전을 현재에 계승하기 위해 저널 연재,<sup>8)</sup> 잡지 투고,<sup>9)</sup> 라디오 방송,<sup>10)</sup> 대중 강연,<sup>11)</sup> 블로그 운영과 팟캐스트 방송,<sup>12)</sup> 인문서 출간 등의 시도를 해보았다.

이런 다양한 방법 중, 본고에서는 인문서 출간을 통한 고전문학 대중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그동안 필자가 집필한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 5편의 인문서를 중심으로<sup>13)</sup> 출간 목적과 방향, 서술 전략과 방법 등을 검토해 봄

콘텐츠의 성격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1~257쪽 참조.

- 8) 『중학 독서평설』 〈고전, 오늘을 여는 창〉(2013.01~2013.12) 총 12회 연재; 『월간조선』 〈유광수 교수의 우리 고전 비틀기〉(2016.01~2018.07) 총 29회 연재; 『기독교사상』 〈평신도 고전학자의 성서 읽기〉(2016.03~2017.05) 총 15회 연재.
- 9)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연재한 글 외에, 정부, 학교 및 문화 관련 단체 기관지,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에 1회성 청탁으로 실은 글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70여 차례였다.
- 10) TBS FM 라디오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의 〈유광수 박사의 은밀한 고전〉(2018.03~2021.03) 총 149회; CBS FM “굿모닝 뉴스 이명희입니다” 〈슬기로운 고전생활〉(2021.01~2021.04) 총 17회
- 11)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공서와 대기업, 은행, 증권사 등의 기업과 공공재단,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TV, 라디오 등의 1회성 강연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0여 차례 진행하였다.
- 12) 블로그는 2022년 5월부터 자유연재를 하고 있고, 팟캐스트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매달 1편씩 연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현황 및 방법은 유광수, 「고전문학의 계승과 확장 방안-블로그, 팟캐스트 연재의 경우」, 『열상고전연구』 80, 열상고전연구회, 2023, 195~234쪽 참조.
- 13) 5편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고, 이하 인용은 해당 텍스트의 제목으로 간략히 하도록

으로써 우리 고전을 오늘에 계승·확산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

## 2. 인문서의 목적과 방향

### 1) 출판 과정과 독자 눈높이

인문서 출판이 논문 등의 다른 글쓰기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인문서를 내는 것은 대중적 출판이라는 점이다. 대중적 출판은 단순히 글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정도 이상의 복잡함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집필자가 경제적 목적을 피한다는 것보다 더 깊이 출판 모든 과정에 일정한 경제적 관점과 목적이 개입하고, 그에 따라 저작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중적 출판이 가능한 인문서는 연구자 개인의 논점만이 아닌 산업적 과정을 통한 결과물로서의 상품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sup>14)</sup> 실제로 인문서를 집필했다고 모두 출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청탁하거나 계약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집필이 완료되어도 출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보다 시장 상황에 따른 경제적 이해득실이 먼저 고려되기 때문이다.

일정한 내용을 담기로 계약되어 출판이 결정된 경우라면 출판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도 여전히 시장 상황에 따른 경제적 판단이 우선한다. 출판 편집자가 집필 내용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존에

---

하겠다.

- ① 유광수, 『가족기담』, 웅진지식하우스, 2012.
- ② 유광수, 『고전, 사랑을 그리다』, 한연, 2015.
- ③ 유광수, 『문제적 고전살롱: 가족기담』, 유영, 2020.(『가족기담』 개정정보판)
- ④ 유광수,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영, 2021.
- ⑤ 유광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삼인, 2023.

14) ‘상품성’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본질에서 멀어질 위험성을 늘 지니고 있다.

출판되어 대중에 선택받아 널리 유통되던 것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절판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sup>15)</sup> 실제 집필 과정에서 담지 못했던 것을 더 담아내기도 하고, 때론 덜어내거나 약화시켜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족기담』의 개정판인 『문제적 고전살롱: 가족기담』의 경우, 철학성과 인문성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출판사 의견에 따라 해당 부분을 더 부각했다. 이런 측면으로 내용을 강화시키는 것이 고전문학의 진지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전문학 작품의 발랄성에는 저어될 수도 있다. 즉, 고전의 깊이를 이해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 작품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교훈을 찾으려는 측면에서만 보게 될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강화하면서도 최대한 관념성에 덜 주목하도록 서술하려고 노력했다.<sup>16)</sup>

덜어내거나 약화시켜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 역시 과도하면 본질적 고전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마케팅 차원에서 문제가 될 만한 폭력성이나 성애표현 등을 배제하는 경우가 그렇다. <변강쇠가> 같은 작품은 텍스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에 접근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나, 짙은 성적 표현이 거슬린다는 출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면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이다.

때론 해당 작품 자체를 다루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본질을 빗겨 서술해

15) 필자의 경우 『가족기담』은 해당 출판사 모기업의 부실 문제로 마케팅을 비롯한 모든 것이 불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후 계속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입장에서 절판하게 되었다. 다만, 저작의 가치를 알아본 타 출판사에 의해 개정증보판 『문제적 고전살롱: 가족기담』을 출판할 수 있었다.

16) 흥부와 심봉사를 대조하면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악이 평범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흥부가 생각의 무능에 빠졌기에 행동의 무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였다.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거나 성찰하지 않은 이유는 자칫 흥부와 아이히만을 연결짓는 식의 오도를 독자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유광수(2020), 앞의 책, 214~216쪽 참조.

야 할 때도 있다. <장화홍련전>의 경우가 그러했고,<sup>17)</sup> <심청전>의 경우도 그러했다. 특히 심청의 경우, 그녀의 효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현대 가족에서 빛어지는 폭력성과 희생, 조금 더 심각하게는 자살, 도피 등의 문제와 연결되기에, 가급적 심청의 효를 덜 강조하게 서술했다. 이 모든 과정이 꼭 출판사의 이기적 목적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필자 자신의 경제적 욕망도 당연히 개재되어 있고, 필자 자신 역시 현 시대를 살고 있기에 당대 사회 에토스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즉, 현대 사회의 자살, 도피, 중독 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필자의 노파심과 우려가 더 크기도 했기 때문이다.<sup>18)</sup>

이렇게 출판과 편집 등에 제약에 있으나, 내용은 집필자 스스로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담아내야 한다. 그것이 인문서 출판을 통한 고전문학의 대중적 확산의 목적이자 이유이다. 즉, 출판이라는 현실적 상황과의 끝임 없는 길항 속에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인문서를 출판할 이유는 없다.

17) 그래서 해당 내용을 서술하면서 ‘근친상간’이란 극단적 언급 대신, 최대한 우회하면서도 충분히 이해되도록 서술하려 노력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광수(2020), 앞의 책, 238~257쪽 참조.

18) <심청전>에서 심청이 내린 결정이 ‘앞 못 보는 아버지와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행한 삶에서의 도피’, ‘비록 눈을 뜬들 아버지의 삶이 결코 더 나아질 리 없다는 냉정한 현실 판단’, ‘심청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길이라고 판단한 소극적 현실도피’, ‘인신매매의 참혹함과 주변의 비정함’ 등등을 중심으로 조명하여, 심청의 충동적 죽음에로의 도피와 영원 회귀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이 출판사의 입장 때문만이 아니라, 필자의 판단이었다. 심청의 고민과 도피 등에 대해서는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89~518쪽; 윤인선, 「심청의 우울증」, 『라강과현대정신분석』 12(1),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0, 89~107쪽;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한문학회, 2010, 35~60쪽; 김정은, 「자신을 필자 부모 봉양하는 이야기」에 나타난 희생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97~224쪽;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65~103쪽 참조.

인문서 출판이 논문 등과 다른 두 번째 특징은 독자를 명징하게 상정한 글쓰기여야 한다는 점이다. 인문서를 단순히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쉽게 집필자 자신의 눈높이에 따라 글을 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독자인 일반인의 처지와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명확한 대상을 상정한 후, 그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고 전달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독자 수준에 맞는 용어와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글을 쓸 수 있느냐는 본질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해당 텍스트를 어떤 이들에게 읽게 할 것이냐는 독자수용층을 분명히 상정해야 한다. 실제로 출판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각주와 전문적 인용문을 배제한 정도의 인문서도 있고 자기계발서류의 인문서도 있는데, 그 각각은 전혀 다른 독자층을 상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상정한 독자층에서 배타적으로 수용된다. 즉, 그들은 ‘인문서’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 전부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높이에 적절한 것만을 소비한다. 다른 층위에 있는 인문서는 전혀 다른 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문서 출판에서는 반드시 자신이 쓰려는 글이 전문적인 것을 즐기는 일반인부터 기회가 나면 한번 들춰 보겠다는 일반인들 사이의 어떤 독자층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독자층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야 하며, 당연히 그 독자층에 맞는 어휘, 어투, 설명 수준, 난이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

필자가 상정한 독자층의 눈높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도의 일반인이었다. 이는 중등교육 과정에 있는 연령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고전에 관한 한 중등교육에서 다룬 정도에 머문, 학교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도 고전문학에 대한 인식이 더 나아지지 않은 일반인들을 의미한다.

독자 대상을 상정하는 것보다 서술 방식과 문체는 조금 더 초점화시켜야 한다. 연령대에 따라 쓰는 어휘와 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를 구사하고, 문장의 길이, 서술 방식, 내용의 난이도 등을 조절했다.<sup>19)</sup>

이런 독자 상정을 통한 눈높이 조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으로, ‘독자를 가르치려 할 것이냐’, ‘독자에게 알려 줄 것이냐’의 선택이다. 연구자로서의 전문성과 권위를 지나다보면 자칫 ‘강의용’처럼 되어버릴 수 있고, 독자의 눈높이를 낮춰 잡을 경우 더더욱 이런 방향에 빠질 우려가 있다. 강의용처럼 가르치는 것이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다. 강의용 교재나 전문적인 강좌용을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당 지향을 지닌 인문서들이 널리 확산되어 대중적 인식을 제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상정한 독자층에 대중적 확산을 피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필자는 일반인들이 굳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강의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sup>20)</sup> 그래서 필자는 누구나 흘러들어도 될 정도로 손쉽고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범박한 용어이긴 하나, 강의용이 아닌 ‘일반용’을 방향성으로 정했다.

즉, 고급스런 취향을 지닌 독자들보다 더 일반적인 보통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쉽게, 편안히, 친근하게 읽고 접하면서, 느끼고 이해하고 감동

19) 이런 독자층의 규정과 초점화는 서술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테면, ‘사달이 났다’고 서술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상정한 눈높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기에, ‘사달’의 뜻을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들었다. 심지어 “‘사달’이라고 써야 할 것을 오자(誤字)로 ‘사달’이라고 썼구나.”라는 엉뚱한 오해를 빚을 가능성까지 있었다. 그렇다고 비슷한 의미인 ‘탈이 났다’고 쓰면 문장의 리듬감이 떨어져서 앞 내용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 결국 고민 끝에 해당 문장을 비롯한 단락을 아예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다르게 집필했다.

20) 물론 아주 없다 하기 어렵지만 소수이고,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흥미로운 즐길 거리를 찾는다. 이는 흘러들듯 틀어놓는 라디오 매체의 경우처럼,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그러했다. 그러므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강의용으로 고전을 수용할 독자’는 대중적으로 많지 않아 보인다. 라디오 매체를 통한 고전 계승과 수용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광수, 「고전의 현재적 계승 방법과 의미-라디오 방송의 경우」, 『어문론집』 87, 중앙어문학회, 2021, 35~68쪽 참조.

할 수 있도록 고전문학에 대한 인문서를 집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 2) 핵심 컨셉과 지향

인문서의 내용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핵심 컨셉이다. 이는 모든 출판 글이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연구자들은 간과하기 쉽다.<sup>21)</sup> 연구자 입장에서선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것이 중요하기에 알아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집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강의용일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일반 용일 때는 적절치 못하다. 일반 독자 입장에서 해당 책을 읽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혹은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을 손에 잡히듯이 명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독자들이 해당 글을 수용하기 어렵다.

물론 하나의 저작에 여러 컨셉을 담을 수도 있지만 고전을 대중화하는 방법으로는 가급적 하나의 컨셉으로 하나의 저작을 저술하는 것이 더 낫다.<sup>22)</sup> 그래서 필자는 한 권의 저작을 읽고 나면 적어도 고전문학에 대한 하나의 인상과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컨셉을 설정했다.

『가족기담』과 『문제적 고전살롱: 가족기담』의 핵심 컨셉은 ‘가족’이었고, 『고전, 사랑을 그리다』는 ‘사랑’,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는 ‘복’, 『아

21) 핵심 컨셉이 필요한 것은 ‘고전’이라는 것의 방대함 때문이기도 하다. 고전의 모든 것을 한정된 지면 안에 다 담을 수 없기에 컨셉에 따라 해당 내용을 찾아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22) 고전문학 작품이 본래 다양한 상황과 내용을 지니고 있기에, 컨셉이 여럿일 경우 그 혼란스러움이 심해져 자칫 고전의 난해함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문학적 이해는 지극히 개인적 과정으로 그것은 해당 순간에는 하나의 핵심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다시 읽을 경우 또 다른 주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후 문제로, 당면 순간에는 오직 하나의 측면에서 하나의 핵심을 얻는 1회적 수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여러 컨셉을 다양하게 담는 것이 옳다 해도 독자들이 단번에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텍스트란 끊임없이 생성하듯 해석되는 것이기에 그렇다. 텍스트의 생성과 변환, 해석에 대해서는 물랑바르트,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2022, 62~67쪽 참조.

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종교적 의미’가 핵심이었다.

그렇다고 『가족기담』은 단순히 가족 이야기가 들어간 고전 작품을 무작위로 선별해 집필한 것이 아니다. ‘가족’이란 핵심 개념을 담기 위해,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통해 관점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이야기를 선별해서 서술했다.

가족 구성은 ‘남편-아내’의 부부가 1차적이고 이후 ‘부모-자식’의 관계가 2차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큰 가닥을 세웠고, 지금과 달리 ‘아내’ 상황에 조선시대에는 처와 첩이 있었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기능을 했기에, 이 역시 중요한 줄기로 설정했다. 이렇게 세 줄기를 근간으로 독자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 구성을 다음처럼 했다.

- 1장. 우리 이 애를 물어버립시다
- 2장. 어린 누이는 사람 먹는 괴물이 되었다
- 3장. 내 오늘 좋은 꿈을 꾸었던 말이다
- 4장. 과거를 묻지 마세요
- 5장. 저년을 잡아 내려라
- 6장. 쓸모없는 지아비는 따르지 마라
- 7장. 어찌 과부라고 해서 정육이 없겠느냐
- 8장. 쥐뿔도 모르는 게!
- 9장. 너 원한 적 없어

독자들 입장에서 특정 장을 골라서 읽어도 되지만, 순차적으로 읽을 경우 더욱 이해가 쉽도록 구성했는데, 컨셉인 ‘가족’을 중심으로 필자가 설정한 세 줄기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식’ 관계에서, 상향식 지향인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효(孝) 문제를 1장에서 다루고, 하향식 지향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문제를 2장에서 다뤘다.

‘남편-아내’ 관계에서, 첩이 만들어지고 첩이 작동하는 방식을 3장에, 첩을 향한 남성의 욕망을 4장에, 남편 한 명의 아내로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처첩 갈등 문제를 5장에서 다뤘다.

‘부모-자식’과 ‘남편-아내’ 관계는 사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엮이는 것이기에 이를 총체적으로 보아야 했다. 그래서 남편이자 부모로서의 남성을 6장에서 다루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다시 자유롭게 성혼할 수 있는 남성과 달리,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여성 상황에 주목하여 홀로 남은 부인이자 부모로서의 여성 문제를 7장에서 다뤘다.

또한, ‘부모-자식’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두 세대에만 걸친 문제가 아니라, 위아래로 적어도 3세대 이상 연결되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8장에서 다뤘다.

그리고 핵심 컨셉인 ‘가족’에 대해 고전이 말하고자 했던 가능성과 비전을 9장에서 제시하여,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고전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렇게 핵심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통해 내용을 구조화시켜 고전 이야기를 설명하는 방식은 이후 다른 인문서를 집필할 때도 동일했다.

『고전, 사랑을 그리다』는 ‘사랑’이었는데, 사랑의 내포가 너무 자의적이고 외연이 광범위하여 규정이 쉽지 않아, 결국 성립하는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자기만의 일방적 사랑’과 ‘서로의 사랑’으로 구분했다.

그렇게 ‘혼자만의 사랑’에서는 ‘짝사랑’, ‘마스터베이션’, ‘도착과 페티시즘’, ‘강간’, ‘간통’을 다루고,<sup>23)</sup> ‘서로의 사랑’에서는 몸과 마음이 괴리된 ‘편화된 사랑’, 가짜 욕망에 시달리는 ‘엇나간 사랑’, 첫사랑의 슬픔을 담은

23) 특히 간통을 혼자만의 일방적 사랑에 구성한 것은 간통의 비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간통이 본질적으로 착각으로 빚어지는 상황이기에 착각이란 일방향성에 주목하여 구분한 것이다.

‘고운 사랑’, 사심 없이 우러나온 ‘순수한 사랑’, 인간다움이 승화된 ‘숭고한 사랑’을 다뤘다.<sup>24)</sup> 이를 통해, 일반적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으며 서로의 사랑 역시 본질에서 벗어나 과편화되기 쉽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어설뿐 사랑의 감정(‘고운 사랑’)을 순수하게 가다듬어(‘순수한 사랑’) 인간다움으로 고양하는 것(‘숭고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는 ‘복’을 중심으로 인간 보편의 욕망인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앞서의 다른 책들은 하나의 구심점으로 뭉쳐지도록 구성했다면, 이 책은 다초점화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핵심 컨셉인 ‘복’은 나름 명징해 보이니 복을 분류·구분하다 보면, 복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규정, 철학적 성찰과 분석에 머물 위험이 있어서였다. 앞서의 ‘가족’은 분명 한 외적 관계를 통해 범위가 규정되고, ‘사랑’ 역시 관념적이긴 하나 개인이 아닌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일정한 외적 관계를 통한 범위 규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복’은 매우 주관적인 관념의 산물이기에 내포와 외연이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다름이 틀림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sup>25)</sup> 즉, 그렇게 자신이 복이라고 상정하고 믿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과정이기에, 선불리 거시적 규정을 가지고 분류나 구분을 하면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복의 범위를 규정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어렵기에 복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러 가치를 제시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저런 것도 복이구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저런 삶이 복일 수 있겠군”과 같은 공감과 이해를 꾀하며, 혹시라도 독자 입장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이 빠져 있더라

24) 자세한 세부 구성은 유광수(2015), 앞의 책, 1~349쪽 참조.

25) 특히, 고전문학 작품과 연관지어질 때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첩의 처지와 현대의 내연녀 처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 않고, 각기 그 처한 여성들의 인식 방법과 수준, 수위도 다르기 때문이다.

도 이탈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필자가 제시한 ‘사소함이 전부다’, ‘과정에 복이 있다’, ‘아량과 염치가 필요하다’, ‘마음 절약이 먼저다’, ‘버릇에 먹히면 안 된다’ 등의 언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sup>26)</sup>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의 경우 독자들이 생각하는 외연과 내포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다초점방식으로 구성했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다뤄야 할 대상 텍스트가 난해하고 광범위해서 다초점방식을 피했다. 이 책은 고전의 확장성을 피한 저술로, 종교적 의미와 고전문학의 가치가 만나는 지점을 포착하여 종교 텍스트에 고전문학을 비교·대비하였다.

실제로 우리 고전문학은 불교와 친연성이 높는데,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이기에 그러했다. 그러나 문학이 종교적 교리를 설명하거나 종교적 가르침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sup>27)</sup> 명징하게 구조화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문서를 집필하는 것이 고전작품의 종교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처럼 고전에도 상사한 것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에, ‘가족’, ‘사랑’처럼 핵심 컨셉에 따라 체계적 구분을 시도하지 않고, ‘복’의 경우처럼 다초점방식을 택했다.<sup>28)</sup> 고전문학에서 나를 익숙한 불교가 아닌 전혀 다른 이질적

26) 자세한 세부 구성은 유광수(2021), 앞의 책, 1~148쪽 참조.

27) 몇몇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삼국유사』의 경우 각편을 종교적 텍스트로 볼 것인지, 종교적 의도에 따라 당대 전승되던 문학성을 띤 각편을 수용한 것인지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일연스님의 편찬 의도와 시각에 따라 호출되어 저술된 것이 『삼국유사』라는 점은 분명하고, 그런 저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적 색채가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것이 문학이냐는 본질적 논의는 더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고민해 볼 내용은 고운기, 「일연의 균형으로서 글쓰기-삼국유사 서술방법연구1」,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37~63쪽; 조정철, 「일연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 『불교철학』 9,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21, 77~103쪽; 명계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불교(佛敎) 관련 문헌(文獻)과 과제(課題)」, 『불교철학』 9,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21, 177~216쪽 참조.

28) 대상인 종교텍스트를 구분 분류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분하다보면 해

인 종교인 서양의 기독교와 접목을 시도했는데, 이 시도는 고전문학에 담긴 의미를 널리 알리는 수단으로써 기존의 철학적, 종교적 관념과 비교를 통해 의미화를 꾀하는 방법이었다.<sup>29)</sup>

앞서 언급했듯이 고전 인문서의 본질적 목적은 일반인들에게 쉽게 고전문학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다초점화된 방식으로 택한 내용도 교리에 치우친 것이나 종교 색채가 짙은 내용이 아닌 인간 보편의 본성과 일반적 사회에 관한 내용을 택했고, 그에 맞춰 고전 작품에서 적절한 것을 연결지어 풀이함으로써,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같은 것인데, 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익숙히 아는 보편적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관념으로 인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고전 〈장자못 전설〉과 대비해서 읽음으로써 오히려 그 핵심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sup>30)</sup>

그동안 집필한 5권의 인문서는 나름의 순차성을 띠면서 진행한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사랑, 복이란 핵심 컨셉을 중심으로 ‘우리 고전을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후에는 조금 더 구체성을 띤 사회·종교·철학적 가치와 연결을 시도했다. 앞으로 우리 고전과 당대 사회문화적 에토스와 상관관계, 우리 고전과 서양 신화의 가치 비교 등으로 더 확장시킬 것이다.<sup>31)</sup>

---

당 종교 텍스트에 대한 연구나 이해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고전 인문서의 목적은 고전이지 종교가 아니다.

29) 기실 근대적 문학연구 방법론은 성서 텍스트 연구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성서 텍스트의 원전 확정을 위한 연구, 역사비평, 편집비평 등의 방법 등등 많은 부분에서 문학연구 방법론이 영향을 받았다. 성서 텍스트 연구에 대해서는 대럴 L. 벅 외, 감광모 역, 『신약성서 해석학』,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7, 1~626쪽;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김정훈 외 역, 『구약성서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대한성서공회, 2020, 1~424쪽; 스티븐 L. 매킨지 외, 유연희 역, 『최근의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한국기독교연구소, 2023, 1~345쪽 참조.

30) 구체적인 내용은 유광수(2023), 앞의 책, 1~264쪽 참조.

### 3. 고전문학 대중화 방법

#### 1) '문학'이란 총체성

고전문학이 오늘날 대중적으로 향유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문학 본령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일 수 있다.<sup>32)</sup> 즉, 당대에 '문학 작품'으로 존재하던 것을 후대인 지금은 지식 창고 혹은 도덕 교과서처럼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기에 제대로 향유되지 못할 수 있다. 기실 이는 고전을 대하는 가치 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고전을 접하는 분량에 의해 빚어지는 문제이다. 문학은 작품으로 존재하기에 그 수용은 총체적이고 전체적인데, 우리가 고전 작품을 접하는 방식은 일부분을 떼어내 이해하거나 요약하여 수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러하고, 또 그러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sup>33)</sup> 이런 부분적 수용방식이 작품의 본령을 오해하게 하거나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측면을 유발한다. 이런 파편적 수용이 비단 학교 현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문서 집필에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적 문제다. 운문이나 짧은 서사물이 아닌 이상, 작품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전 작품 전체를 현대어로 완역하여 만들어진 텍스트가 있으나, 그 텍스트를 읽은 독자들만이 인문서를 접하는 것이 아니기에 인문서 집필에는 늘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 부분만 파편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에, 집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빚어낼 가능성이 상

31) 당대 사회 문화적 에토스적 호출에 따른 고전의 해석과 수용 문제에 대한 인문서는 현재 집필 중인데 2024년 초 즈음에 출간될 예정이고, 우리 고전과 서양 신화의 가치를 담은 인문서는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32) '문학'에 대한 많은 논의 중에 '문학'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또한 '문학'이란 본령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현,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1976, 1~292쪽; 류현주, 「문학의 주검과 매체 대각화」, 『현대문학이론연구』 4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5~17쪽 참조.

33) 현재 교육과정의 분량과 시간 문제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존하고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음미하기도 어렵다.

문학 작품에서 이런 총체성이 중요한 것은 이룰데면, 〈열녀함양박씨전〉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 박지원의 글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sup>34)</sup> 파편적으로 다루면 안 되고, 전체를 모두 보여주어야 한다. 작가는 제명에 부합하는 내용인 ‘함양박씨 이야기’ 앞부분에 서문과 ‘엽전 골리는 이야기’를 배치했는데, 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작가가 〈열녀함양박씨전〉을 통해 말하려는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고,<sup>35)</sup> 결국 고전의 고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문학이란 총체성을 염두에 두고 첫째, 주로 설화 등의 짧은 서사물 위주로 다루려고 노력했고 둘째, 긴 작품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춘향전〉, 〈홍부전〉 등의 작품을 다루었고,<sup>36)</sup> 셋째, 그렇지 못한 작품의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내용을 다루려 했다.

이렇게 고전을 현재화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고전 작품은 당대에 문학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분의 파편이 아닌 전체 작품을 보

34) 박지원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박수밀, 「박지원 문학에 나타난 글쓰기의 기본 방침」, 『온지논총』 34, 온지학회, 2013, 161~186쪽; 박수밀, 「박지원 서(序)의 서두 글쓰기 전략」,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2012, 365~394쪽; 황혜진, 「박지원 평문의 작문론 연구」, 『작문연구』 25, 한국작문학회, 2015, 63~99쪽 참조.

35) 〈열녀함양박씨전〉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는 최지녀,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연구」,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165~186쪽; 강평관, 「『열녀함양박씨전』 재론」, 『동양한문학연구』 32, 동양한문학회, 2011, 5~24쪽; 이월영, 「『烈女咸陽朴氏傳』 研究」,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59~187쪽; 박수밀, 「『烈女咸陽朴氏傳』의 구조와 글쓰기 방식」, 『한국학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391~421쪽 참조.

36)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해당 작품을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했거나 해당 텍스트를 읽었을 거란 의도가 아니라,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해도 전체 맥락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춘향전〉을 읽지는 않았어도 〈춘향전〉이 지니고 있는 지향성과 방향은 익히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주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작품을 요약하거나 부분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 집필자는 작품 전체의 총체성을 염두에 두고, 그 작품 지향이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부각시켜 설명을 해야 한다.

## 2) 설명과 풀이를 통한 제시

고전을 현재에 계승하는 방법에서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강요가 아닌 설명, 설득이 아닌 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중적 확산의 이유이자 목적인 일반 독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전래동화 등으로 들던 때의 흥미성과 자발성이 중등교육 현장으로 넘어오면서 성적을 위한 도구 수단으로 변질되어 고전을 강요에 의한 당위적 이해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더 그렇다.

사실 문학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고, 도덕이나 윤리적 당위가 아니라 흥미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존재는 구심점을 향한 끌어당김에 있지 않고 해석적 가능성을 통한 원심력이 작용하는 다양성에 있다. 문학의 향유가 이런 다양성과 분산적 사고이기에 문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sup>37)</sup> 현재 만들어지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전에 대해서는 뭔가 중요한 가치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이유는 고전 작품이 존재했던 시대 배경과 상황, 고전이 담고 있는 내용의 이질감, 표현하는 낯선 어휘들, 당대 관습과 문화지형 등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작품이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독자들은 문학에서 강요받고 싶지 않으면서도, 고전작품에 대해서는 뭔가 알아야 하고 뭔가 배워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선제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율배

37) 대표적인 것이 문학이 지닌 환상성을 통한 전복이라 할 것이다. 중심 가치에 도전하고 전복과 해체를 시도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다.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2, 1~246쪽 참조.

반적 상황에서 집필자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종종 도식적 교훈이나 집필자의 과잉 의미 부여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렇기에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작품이 존재했던 시대 배경 등이 현재와 달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주는 정도로 설명하고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렇게 선택을 독자에게 맡기는 방식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하고 인문서를 집필했다. 그래서 <홍길동전>의 경우, 홍길동이 적서차별을 겪었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처와 첩을 두었다는 사실, 울도국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나라였는데 홍길동이 정복을 했다는 사실<sup>38)</sup> 등을 작품에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sup>39)</sup> 홍길동의 욕망이 어떠한지를 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성찰하도록 했다. 독자들이 스스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홍길동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홍길동도 걸으로는 대의명분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욕망덩어리였다’든지, 혹은 ‘자신은 비록 첩을 두지만 왕이니 그 정도는 가능하다’든지, ‘성공한 후에 퇴역적으로 도피하는구나’, 혹은 ‘첩을 두어도 차별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등의 다양한 사고를 독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다양한 해석과 음미가 고전을 문학으로 향유하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38) <홍길동전> 원본 계열은 물론 대다수 이본들이 모두 홍길동이 태평성대인 울도국을 정복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울도국이 태평성대가 아니라,昏君에 의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는 오직 후대 세책본인 동양문고본 <홍길동전>밖에 없다. 이렇게 거슬리는 내용이기에 오랫동안 <홍길동전>의 불통일성 논란이 있었고, 알렌 같은 외국인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서 번역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서는 유광수, 「<홍길동전>: 홍길동의 자기 존재증명과 욕망의 서사」, 『철학·사상·문화』 3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438~460쪽; 유광수, 『알렌(H. N. Allen) 번역 「홍길동전」 연구』, 『어문론집』 89, 중앙어문학회, 2022, 163~194쪽 참조.

39) 이를 『가족기담』에서는 설명과 풀이 이후에 필자의 의견 제시는 “홍길동도 남자였다”는 정도의 범박한 서술로 마쳤다.

### 3) 의미화와 확장

고전문학 작품을 하나의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전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대중적 고전문학 확장에 중요한 방향이다. 독자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작품뿐만 아니라 고전이 존재했던 당대를 이해하고, 고전 작품이 의미를 지녔던 가치를 깨닫는 것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발전적으로 계승할 만한, 즉, 가장 고전다운 본질적 가치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당 인문서 안에서 제시해야 한다. 사실 모든 고전 작품을 다룰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모두 다루는 것이 적절치도 않다. 그러므로 고전의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스스로 의미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0)</sup>

필자는 기녀와 여성에 대한 관념이 우리 고전에서 매우 중요한 본질적 가치라 판단해서 해당 저작을 집필할 때 주요하게 풀이하고 설명했다. 『가족기담』에서는 ‘가족’이라는 핵심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했고, 『고전, 사랑을 그리다』에서는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서 기녀와 여성을 풀이하러 노력했다.

흔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반용 인문서를 집필하는 것이기에, 핵심 컨셉이 훨씬 더 중요하고 고전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은 종속적인 작업이다. 물론 고전의 가치가 더 의미 있고 ‘가족’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은 부수적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고전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려고 인문서를 읽는 독자들은 많지 않고, 대중적 인문서의 목적은 유연하고 편안한 수용을 통한 고전 가치의 확산에 있다. 그래서, 필자는 고전의 핵심 가치

40) 이를테면, 관혼상제(冠婚喪祭) 중에서 혼인(婚姻)에 대해서 핵심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비록 상례(喪禮)나 제례(祭禮)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 해도, 당대의 상황과 분위기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를 전면에 내세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제시한 여러 편의 작품들을 통해 자연스레 묻어나도록 서술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작품들과 내용을 순차적으로 수용한 독자들이라면 기녀와 여성에 대한 일정한 상(像)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sup>41)</sup>

구체적으로 『가족기담』에서 각각 가족의 특정 사안에 대해 초점화해 설명했지만, 독자들은 ‘가족’은 물론 고전이 지니고 있는 기녀와 여성에 대해 저절로 이해되도록 서술했다. 즉, 〈춘향전〉의 춘향과 〈홍길동전〉의 길동모 춘심이 놓인 상황, 〈구운몽〉의 계섬월과 적경홍의 처지, 〈옥루몽〉의 벽성선과 강남홍의 상황, 〈홍계월전〉의 홍계월의 활약과 귀환, 〈쥐 변신 설화〉에서 부인이 처한 곤욕, 〈열녀함양박씨전〉의 동전 굴리는 과부 여인의 욕망 등을 이해하고 나면, 당대 여성들의 삶과 기녀들의 삶에 공감하게 되고 인간다움을 지향했던 고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고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도록 서술한 것은 고전이 지니고 있는 인간다움이란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였지, 현실의 에토스적 관념과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소환적 성격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때론 〈홍길동전〉의 홍 판서가 벌인 강간적 상황에<sup>42)</sup>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쥐 변신 설화〉의 여성에 가해진 폭력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상황에<sup>43)</sup> 마뜩잖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작품 텍스트의 내용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풀이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41) 기녀와 여성의 삶이 우리 고전의 모든 것이 아니지만, 우리 고전의 핵심적 요소임이 분명하고, 하나의 저작에서 고전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몇몇 가치 있는 것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이후 다른 저작, 다른 내용을 통해서 우리 고전에 대해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 홍길동의 아버지 홍 판서의 욕정과 행동에 대해서는 유광수(2019), 앞의 논문, 438~460쪽.

43) 이에 대해서는 유광수, 「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123~151쪽 참조.

의미화 하도록 했다.

이렇게 독자들의 의미화를 꾀하기 위해서, 우리 고전을 우리 현실과 사회에만 적용·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작품, 외국의 상황, 현재의 사회문화 상황 등과 견주려는 시도 또한 병행했다. 널리 알려진 동서양의 철학적 보편 사상과 연결지어 설명하려 했고, 『그림동화』, 『페로동화』, 『그리스로마신화』, 『성서』 등과 비교·대비하였다. 이는 우리 고전의 가치가 우리들만의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우리 고전이 인간 보편의 일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고전은 화석처럼 박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 쉬는 가치 있는 문학 작품임을 드러내려 노력했다. 그래서 우리 고전은 여전히 가치 있으며, 고전 작품은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 가능하며,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살아 움직이는 인간 본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음을 역설했다.

#### 4. 결론

필자는 지금까지 5권의 인문서 출판을 통해 고전문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다. 동일한 내용을 담더라도 잡지에 연재하는 것보다 인문서로 출판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은 내용에 대한 잡지사와의 출판사의 편집 반응 때문이다.

잡지사 입장에서 연재글은 매번 새로운 컨셉을 요구할 수 있고, 때때마다 수정하기도 쉽다.<sup>44)</sup> 때론 연재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기에, 잡지 편집자

44) 필자는 2013년 1년 동안 매달 『중학 독서평설』에 〈고전, 오늘을 여는 창〉이란 연재글을 싣었는데, 잡지사 편집자의 시각에 따라 내용이 수정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부되기도 했다. 문제는 그 편집자의 판단이 “중학생에게 적절치 않다”는 시각 때문이다. “〈운영전〉은 학교에서 비극적이고 애절한 사랑으로 배우기에, 그런 해석은 맞

입장에선 연재글이 덜 부담스럽다. 게다가 잡지에 해당 글만 실리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적이라 판단해도 때론 다른 글에 묻어가게 방임할 수도 있다. 사실 그리 많은 독자가 잡지를 접하는 것이 아니며, 잡지를 읽을 때 꼭 해당 글을 읽을 목적으로 찾는 독자도 많지 않다. 게다가 연재를 위해 지불하는 금전도 그리 크지 않기에, 종합적으로 잡지사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서 출판의 경우는 그보다는 훨씬 큰 부담이 작용한다. 출판사 입장에서 단행본이기에 해당 글을 다른 글에 묻어 가게 할 수도 없고, 판촉을 통해 주목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해당 글에 대해 더 진지한 고민과 판단을 한다. 해당 글로만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승부를 벌여야 하기에 훨씬 더 시장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잡지 연재글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한 번 출판한 글은 수정도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출판사 입장에서 인문서는 잡지 연재글에 비해 많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잡지 연재보다 출판이 더 까다로워, 글을 집필했어도 출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고전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집필자 입장에서는 잡지 연재보다 인문서 출판이 더 의미 있다. 단행본으로 출판된다는 가치 외에도 전체적으로 구상한 자신의 견해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해 잡지에 연재했다 해도 그 글들을 모두 찾아 다 읽는 독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순차적 체계에 따라 읽는다는 보장도

---

지 않다”는 비전문적인 판단인데,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며, 연구논문도 많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안평대군의 일그러진 욕망’이 문제적이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듭된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해당 회차에 다른 내용을 썼고, 〈운영전〉은 연재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만들어지고 규정된 틀이 잡지를 연재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일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고전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필자의 의도와는 너무 달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운영전〉에 대한 해당 내용은 『고전, 사랑을 그리다』에 수록했고, 일반인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없다. 하지만 인문서는 집필자의 의도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담아낼 수 있어 독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잡지 연재 글은 매화가 단독적으로 종결되도록 해야 하기에 확실히 심도 있는 연속적인 논의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인문서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인문서 출간이 고전을 글로 현재에 계승하는 방법 중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연재글이 아닌 인문서를 택했다면, 이런 출판 과정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고전의 고전다음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출판과 편집 등에 제약이 있어 내용을 수정 변경 삭제해야 할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을 우회하든 타협하든 관철하든 궁극적으로 집필자 스스로 일정한 수준을 담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전달받을 독자의 눈높이를 명징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독자 수준에 맞는 용어와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서술 방식을 정함에 있어 강의용이 아닌 설명과 풀이를 위주로 하는 일반적 눈높이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컨셉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분류 구분해서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핵심 컨셉에 따라, 때로는 구심점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성을 설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초점화되어 흩어지듯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하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고전문학을 인문서를 통해 대중화하는 방법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결국 고전문학이 존재하던 그대로 전달하려는 의지다. 문학 작품이었다는 총체성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 전체를 보여주려 해야 하며, 가치의 강요나 설득이 아닌 설명과 풀이를 통한 제시에 주안점을 두어 문학의 본령대로 존재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독자들이 스스로 전달자가 제시한 핵심을 통해 의미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대중화 방법을 통해 인문서를 집필했는데, 그에 따라 현재의 에토스적 호출에 따른 이해와 분석이 아닌, 고전의 본래적 가치를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즉, 〈홍길동전〉, 〈춘향전〉, 〈홍부전〉, 〈심청전〉 등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특정 요소를 찾아내듯 발췌하여 의미화시키는 비본질적인 가치 지향이 아닌, 총체적 제시와 풀이를 통해 해당 작품이 지니고 있는 본래적 의미 지향을 되살려내려 했다.

이를테면, “춘향이는 이몽룡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을까?”라는 핵심적 질문을 통해, 〈춘향전〉의 춘향이 놓인 상황이 정절을 강요받는 상황이 아니고,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와 같은 가치는 중세적 가치 지향임을 독자들 스스로 자각하게 했다. 이를 통해 춘향의 항거와 저항은 탈중세적 가치 지향으로 근대적 의식을 지닌 ‘내 몸은 내 것’이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향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이 조선 당대 민중들이 〈춘향전〉에 열광했던 가치이며, 오늘날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가치이고, 오늘에 제대로 자리매김해야만 할 고전의 가치임을 알게 했다. 이를 통해 고전의 고전다움, 고전의 살아 있음, 고전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인간 본성을 담고 있는 시금석임을 역설하고자 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인문서를 집필한 목적은 우리 고전을 오늘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오늘에 삶을 되새기고 고전의 가치를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었다. 기존에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내용, 혹은 시대적 에토스적 호출에 의한 관념적 도그마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내어 설명했고, 궁극적으로 고전의 내용과 가치를 오늘에 연관지어 의미화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고전의 고전다움이 어떤 가치인지를 독자들 스스로 의미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인문서를 통한 고전의 대중적 확산의 과제는 두 가지이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과 같이 핵심 컨셉을 통한 고전의 현재화 방향과 병행

하여 대표적 고전 작품 하나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총체적 의미화를 꾀하는 것이다. 〈구운몽〉, 〈춘향전〉 등의 작품을 그 작품 자체를 고전문학답게 해석하면서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풀이하여 제시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우리 고전의 세련된 수준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고전의 또 다른 매력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1976, 1~292쪽.
- 대럴 L. 벅 외, 『신약성서 해석학』, 감광모 역,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7, 1~626쪽.
-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2, 1~246쪽.
- 롤랑바르트,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2022, 1~271쪽.
- 스티븐 L. 매킨지 외, 유연희 역, 『최근의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한국기독교연구소, 2023, 1~345쪽.
-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김정훈 외 역, 『구약성서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대한성서공회, 2020, 1~424쪽.
- 유광수, 『가족기담』, 웅진지식하우스, 2012, 1~260쪽.
- 유광수, 『고전, 사랑을 그리다』, 한연, 2015, 1~352쪽.
- 유광수, 『문제적 고전살롱: 가족기담』, 유영, 2020, (『가족기담』 개정증보판) 1~320쪽.
- 유광수,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영, 2021, 1~248쪽.
- 유광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삼인, 2023, 1~263쪽.
- 강명관, 「『열녀함양박씨전』 재론」, 『동양한문학연구』 32, 동양한문학회, 2011, 5~24쪽.
- 고운기, 「일연의 균형으로서 글쓰기-삼국유사 서술방법연구1」,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37~63쪽.
- 김경천, 「『經』 개념의 성립과 經書化 과정」, 『중국어문논총』 49, 중국어문연구회, 2011, 135~152쪽.
- 김대범, 「영상매체 전환에 따른 ‘춘향전 콘텐츠’의 성격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1~257쪽.
- 김용재, 「諸註釋을 통해 본 『論語』 經文의 解釋學的 理解[6]」, 『동양철학연구』 81, 동양철학연구회, 2015, 7~43쪽.
- 김정은, 「자신을 팔아 부모 봉양하는 이야기에 나타난 희생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97~224쪽.
- 김현정, 「고전시가의 가치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체의 고찰」, 『국어교육』 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467~499쪽.

- 김희진, 「문학작품의 요약번역에 대한 연구」, 『통번역학연구』 16,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65~85쪽.
- 류현주, 「문학의 주검과 매체 대각화」, 『현대문학이론연구』 4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5~17쪽.
- 명계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불교(佛敎) 관련 문헌(文獻)과 과제(課題)」, 『불교철학』 9,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21, 177~216쪽.
-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7쪽.
- 박수밀, 「박지원 문학에 나타난 글쓰기의 기본 방침」, 『온지논총』 34, 온지학회, 2013, 161~186쪽.
- 박수밀, 「박지원 서(序)의 서두 글쓰기 전략」,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2012, 365~394쪽.
- 박수밀, 「『烈女咸陽朴氏傳』의 구조와 글쓰기 방식」, 『한국학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391~421쪽.
- 박연호, 「한국 고전문학 텍스트의 고전적 가치」, 『한국어문교육』 1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2, 25~43쪽.
- 서유경, 「고전소설교육 패러다임의 점검과 전망」, 『국어교육연구』 63, 국어교육학회, 2017, 87~112쪽.
- 손태도, 「고전문학의 향유방식과 교육; 과거, 현재, 미래」, 『고전문학과 교육』 3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5~45쪽.
- 안재순, 「유가경전해석학과 『논어』의 “해석”」, 『동양철학연구』 62, 동양철학연구회, 2010, 243~272쪽.
- 유광수, 「『취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123~151쪽.
- 유광수, 「〈홍길동전〉: 홍길동의 자기 존재증명과 욕망의 서사」, 『철학·사상·문화』 31,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9, 438~460쪽.
- 유광수, 「고전문학의 계승과 확장 방안-블로그, 팟캐스트 연재의 경우」, 『열상고전연구』 80, 열상고전연구회, 2023, 195~234쪽.
- 유광수, 「고전의 현재적 계승 방법과 의미-라디오 방송의 경우」, 『어문론집』 87, 중앙어문학회, 2021, 35~68쪽.
- 유광수, 「알렌(H. N. Allen) 번역 「홍길동전」 연구」, 『어문론집』 89, 중앙어문학회, 2022, 163~194쪽.
- 윤인선, 「심청의 우울증」, 『라깅과현대정신분석』 12(1),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 2010, 89~107쪽.
- 이월영, 「〈烈女咸陽朴氏傳〉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59~187쪽.
- 이유미,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소설 수록과 활용방안」, 『돈암어문학』 41, 돈암어문학회, 2022, 287~319쪽.
- 이인규, 「찰스 디킨즈 소설의 번역 점검」, 『안과밖』 13, 영미문학연구회, 2002, 254~279쪽.
- 이정원, 「심청전에서 희생제의로서의 재물 약속」, 『고전과 해석』 9,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10, 35~60쪽.
- 장경남, 「고등학교 교과서로 본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와 제언」,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014, 533~559쪽.
- 조경철, 「일연사상의 고유성과 독특성」, 『불교철학』 9, 동국대학교 세계불교학연구소, 2021, 77~103쪽.
-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89~518쪽.
-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65~103쪽.
- 최지녀,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연구」,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165~186쪽.
- 최홍원, 「고전문학 제재의 수록 맥락과 교육적 인식의 탐색-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5~46쪽.
- 한길연, 「사범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제언」, 『문학교육학』 6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45~89쪽.
- 황혜진, 「박지원 평문의 작문론 연구」, 『작문연구』 25, 한국작문학회, 2015, 63~99쪽.

ABSTRACT

Methods of Current Succession and Popularization of Classics by publishing essay books

Yu, Gwang-su

The reason for inheriting classics today is because classics are valuable. There has been a great endeavor to inherit classics today, and it will be continued in many different methods. This article specifically examined the methods of spreading classics through publishing of essay book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value of classics is the nature of literature itself. So, we should be able to write a classic novel itself. Nevertheless publication has its own commercial viability.

Therefore, it was clarified that the inheritance of classics should aim for inclusive extension by embracing ourselves and everything around that classics had. We must be focused that classic's totality more than unessential things such as what is real, what is more valuable and what should we do, or what we would do. Naturally what is important that explanation of classic is needed, learn a lesson through the text are good, intellectual play is inevitable inevitable and so on. But how and what classic novels had been is more important than.

Thus, the inheritance of classics should be accomplished with the effort to find genuineness of ourselves and the true value of classics in addition to the studies of our classics' authenticity and endeavor to inherit them.

Finally we should listen to what classics said. Since this is the proper function of literature and the meaning of its existence.

**Key Words** classic novel, inheritance of classics, popularization, essay book, storytelling

논문투고일: 2023.09.20.
심사완료일: 2023.11.02.
게재확정일: 2023.11.02.